

광주기독병원서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료체계 위협

의료진·환자 5명 양성, 종사자 870여명 진단검사...해당병동 일시 폐쇄 화순 요양병원 5명 추가확진 누적 14명...김영록 지사 "이동자제" 호소

광주와 전남지역 병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 감염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환자 등 병원 곳곳으로 번지면서 시설 격리 등 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모양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기독병원서 5명동 간호조무사(광주 876번)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동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09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이날 오전 병동 간호사 1명과 환자 3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33명의 입원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에 나섰다. 음성인 환자와 의료진들도 2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다. 또, 병원 전체 종사자 870여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876번 환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위험도 평가를 거쳐 병동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화순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지난 19일 하루 동안 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 병원 간호사로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479번과 접촉한 간호사와 환자 4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화순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과 입원 환자 10명 등 14명으로 늘어났다.

김영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타시도 및 우리 지역 사례로 볼 때 의료진 감염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병원 전체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서의 의료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2일부터 코로나 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운영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통해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모임과 종교행사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경우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3.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도 2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화순 요양병원, 경북 경산 기동원 방문 등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의 감염이 다수의 확진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며 "성탄절 및 송년과 관련된 가족·친구·직장 소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의료진과 입원환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병동 일부 폐쇄조치가 이뤄진 21일 응급진료소 옆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내일부터 12일간

서울·경기·인천 행정명령...결혼·장례식 예외 연말연시 방역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일단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 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또 대학별 입학시험 등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

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22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3월 반드시 들어온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도입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파악되고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절차와 경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

기된 것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지는 질문이 반복돼 곤혹스럽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명분, 존슨앤드존슨-얀센에서 400만명분 등 모두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선구매 계약이 체결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얀센과는 연내, 모더나와는 내년 1월에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다시 올해 내내 해외 제약사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1000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2차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금 지급

창작 활동·생계 위기 도내 예술인 대상 4억67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 복지지원금 4억 6700만원을 지급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1차 392명에 이은 것으로 2차 934명을 포함 올해 총 1326명에게 6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위소득 120% 이내 전남지역 예술인으로, 지난 11월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총 2002명 중 66%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1차 보다 2차 지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자로 한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 예술활동 증명 완료 인원이 대폭 증가한데다 지원 기준 또한 일부 완화된 것도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남도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은 올 6월까지 987명에 불과했지만 다섯 달 만에 1015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임점호 한국예총전남지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예술계가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전남도의 지원으로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격정과 응원을 보내 준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예술인 모두가 예방 전남도의 명예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사업비 91억원을 들여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830여명의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공연 등 예술활동 지원에도 3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 복지플랫폼과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림 작품 판매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로자·대기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 15분 공공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일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조채배 적합)

(1) **영암읍 학성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펜션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금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리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금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차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조 채배 최상 현 지석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 채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금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경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엘 퓨어민트, 미엘클래식, 양주르45물티슈 양주르 실키 물티슈

나. 제조번호 : 미엘퓨어민트(20.10.08.299.G1) 미엘클래식(20.10.06.599.G1) 양주르45물티슈(20.10.06.196.G1) 양주르실키물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 1년

라. 회수 사유 :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기준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 반품, 택배

바. 회수 영업자 : (주)지크린텍

사. 영업자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골길 102

아. 연락처 : 061-373-5118

자. 그 밖의 사항 :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감소공고

당회사는 2020년 12월 2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960,000,000원 중 금5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46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96,000주에 대하여 50,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96,000주를 46,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주식회사 삼승금속창호유리
광주광역시 서구 마로로 46, 2층 2호(마로동)
대표이사 김호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고은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연(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0년 12월 2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소방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합병 제53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12월 22일
"갑"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해월로 130-58(공로동)
회 사 명 : 고은종합전기주식회사
사내이사 : 최두영
"을"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284
이동 107호(당동)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연
대표이사 : 최지연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무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은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히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주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일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